

## 공감, 공유, 공익의 시민기술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1.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010년대부터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기술(civic technology)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편하게 쓰게된지 20년, 스마트폰이 익숙해진지 8년이 넘어가고 있으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시민기술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기술이라는 이름 하에 사물인터넷, 드론, 가상현실, 인공지능같은 지능정보기술이 거의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유행시키면 그 어떤 '작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검색, 쇼핑, 게임, बैं킹 등 주어진 서비스 이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사회변화를 위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 2. 시민기술은 무엇인가

'시민기술'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공감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하는 기술 활용'을 의미한다. 즉,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였던 개인 소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와 너를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공간을 걱정하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 활동이다.

예를 들어, 사이트나 앱을 통해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의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고, 정부에 민원 해결을 요청하여 신속한 답을 받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온라인 공간에서 토론하여 공론장을 형성하고, 모두의 힘을 모아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청원을 하며, 좋은 제안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을 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아동. 노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을 제안하며, 책임감있게 모여서 정당이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다양한 참여방식이 시민기술이다.

### 3. 왜 시민기술을 쓰게 되었을까

시민기술이 등장하게 된 것에는 기술, 경제, 정치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기술적 원인으로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술을 통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기술의 쓰임새는 이제 어디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신기술로 돈을 벌 수 있고,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기술을 개인적인 용도나 이익 추구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나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도 가능하다는 시도가 등장하였다.

둘째, 경제적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소유의 종말이다. 1990년대 중반의 IMF 위기나 2000년대 중반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다. 이제는 산업사회나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상품을 제작하고 팔기만 하는 가치사슬구조가 더 이상 효과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 나은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공유하는 가치구조라는 새로운 이익유형이 등장하였다. 이는 시장구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공유라는 새로운 가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정치적 원인으로서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융합 현상을 들 수 있다. 정부, 시장, 시민이 분리되어 각각의 전문영역을 형성하는 분리된 구조는 효율적이지 않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만을 논하던 시대는 지났다. 정부, 시장, 시민 모두 사회의 공존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된 영역일수록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버넌스라는 복잡한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의 효율성은 결국 시민의 건강한 생존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당연하지만 그동안 소홀히 평가했던- 가치가 재구성되고 있다.

### 4. 더 좋은 시민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그러나, 시민기술의 가치가 재구성된다고 해서 미래까지 자연스럽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1) 정보공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랜 관행과 관료제 속에서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공간의 자원은 데이터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정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시민기술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2) 소셜 리터러시와 자원 확보

인터넷 초창기에는 사회경제적 한계 때문에 인터넷 접근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시대에는 기술을 왜 쓰는가를 이해하는 소셜 리터러시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즉, 사회에서 기술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와 성찰이 중요한 과제이다.

#### 3) 책임감과 지속성

태어나자마자 국민이 되는 것은 쉽지만 의식적으로 시민이 되는 것은 어렵다. 비용을 지불하건 안하건 옆에 있는 기술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회적으로 혹은 공익을 위해 기술을 쓰려면 책임성, 신뢰성, 지속성 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